

일개 대학 사회복지전공자들의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기초 연구

최정명
해전대학교 사회복지과
e-mail:steer@hj.ac.kr

A Basic Study on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for Social Welfare Major in University

Jung-Myung Choi
Dept. of Social Welfare,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이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정도를 조사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안전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간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누락된 응답이 있는 설문을 제외한 총 101명의 설문지를 SPSS 19.0 win 프로그램으로 통계 분석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회복지전공자에게 안전교육(4.50, SE:0.054)과 업무수행 시 안전지식(4.50, SE:0.052)이 매우 필요하다고 대부분 응답하였고, 전공수업에 응급처치 수업이 필요하고(4.37, SE:0.061), 안전교육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4.15, SE:0.062)고 답하였다. 그러나 안전교육과 안전지식의 필요성은 높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3.76, SE:0.07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사회복지전공자에게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1. 서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재난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1], 최근에는 사고와 손상의 개념이 윤이 없거나 피할 수 없는 것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증진의 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안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2].

안전사고의 원인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안전규정 위반 및 부주의한 시설물사용과 같은 사소한 원인들이 의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거나, 안전교육의 미비 등과 같은 안전의식 결여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3]. 즉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복지에서의 안전은 ‘클라이언트나 종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재난과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처 방안이 마련된 상태’라 할 수 있다^[4]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017년 말 기준

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총 59,536개 정도로, 어린이집(67.6%)이 가장 많았고, 노인시설(15.8%), 아동시설(8.6%), 장애인시설(5.9%), 기타(2.1%)의 순으로 나타났다^[5]. 사회복지시설 시설이용자는 노인, 아동 및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이며, 재난 발생 시 시설이용자는 일반인들에 비해 초동대응 및 대피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6]. 따라서 시설이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 중 하나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회복지전공자의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해 사회복지분야의 안전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설문조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간 진행하였다. 누락된 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101명의 설문지를 SPSS 19.0 win 프로그램으로 통계 분석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도구로 사용된 총 11개 설문문항은 인구학적특성과 사회복지분야 안전관련 문항으로 사회복지

지 및 안전관리 전공 전문가들의 검수를 통해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구성하였다. 사회복지분야 안전관련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Table1과 같이 Cronbach's α 값이 .816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respondents

Numbers	Cronbach's α	Cronbach's α based on standardized items
5	.816	.837

3. 결과 및 고찰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respondents

Division		(N=101)
Gender	Male	24 (23.8%)
	Female	77 (76.2%)
Age	~ 20	3 (3.0%)
	20 ~ 25	35 (34.7%)
	26 ~ 30	5 (5%)
	31 ~ 40	4 (4.0%)
	41 ~ 50	16 (15.8%)
	51 ~ 60	25 (24.8%)
	61 ~	13 (12.9%)
Practical experience	Yes	32 (31.7%)
	No	69 (68.3%)
Pre-safety education	Yes	75 (74.3%)
	No	25 (24.8%)
School safety education	Yes	82 (81.2%)
	No	18 (17.8%)
Safety education in class	Yes	68 (67.3%)
	No	32 (31.7%)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이 성별은 남성 24명(23.8%), 여성 77명(76.2%)으로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3배 정도 많았다. 연령은 20~25세(35명, 34.7%), 50대(25명, 24.8%), 40대(16명, 15.8%), 60대 이상(13명, 12.9%), 26~30세(5명, 5%), 20세 이하(3명, 3.0%) 순으로 전공의 특성상 40대 이상이 53.5%로 나타났다. 복지분야 실무경험 있음은 32명(31.7%), 없음은 69명(68.3%)으로 나타났다. 사전안전교육(75명, 74.3%)과 학교 안전교육(82명, 81.2%), 수업 시 안전교육(68명, 67.3%)으로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3. Survey results about safety of the social welfare

Questionnaire	χ^2	SD	M	SE
			(N=101)	

1. Safety education is necessary for social welfare.	45.406	.541	4.50	0.054
2. Safety knowledge is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work in the social welfare	47.604	.522	4.50	0.052
3. Knows the safety knowledge necessary for performing work in the social welfare.	40.188	.777	3.76	0.077
4. Safety education improves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34.238	.623	4.15	0.062
5. First aid classes are needed for social welfare classes.	84.149	.612	4.37	0.061

사회복지분야 안전관련 문항은 사회복지전공자에게 안전교육은 필요하다라는 문항과 사회복지분야 업무수행 시 안전지식이 필요한 문항, 안전교육은 사회복지분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 전공수업에 응급처치 수업이 필요하다는 문항으로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는, 사회복지전공자에게 안전교육(4.50, $\chi^2=45.406$)과 업무수행 시 안전지식(4.50, $\chi^2=47.604$)이 매우 필요함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공수업에 응급처치 수업이 필요하다(4.37, $\chi^2=84.149$)고 응답하였으며, 안전교육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4.15, $\chi^2=34.238$)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전교육과 안전지식의 필요성은 높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3.76($\chi^2=40.18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사회복지전공자에게 안전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4. Crossover analysis between Gender and Social Welfare Safety Questions

Crossover analysis	Safety education is necessary for social welfare					Total (N)	
	Very scarce	Scarce	Usually	Suffice	Very suffice		
Gender	Male	0	0	1	9	14	24
	Female	0	0	1	37	39	77
Total (N)		0	0	2	46	53	101

Table 4는 성별과 사회복지전공자에게 안전교육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을 교차분석한 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사회복지전공자에게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rossover analysis between Age and Social Welfare Safety Questions

Crossover analysis	Safety knowledge is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work in the social welfare					Total (N)	
	Very scarce	Scarce	Usualy	Suffice	Very suffice		
Age	~ 20	0	0	1	0	2	3
	20 ~ 25	0	0	0	22	13	35
	26 ~ 30	0	0	0	3	2	5
	31 ~ 40	0	0	0	2	2	4
	41 ~ 50	0	0	0	7	9	16
	51 ~ 60	0	0	0	9	16	25
61 ~	0	0	0	6	7	13	
Total (N)	0	0	1	49	51	101	

연령과 사회복지분야 업무수행 시 안전지식이 필요함을 묻는 문항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20대에 비해 50대 이상에게서 사회복지분야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난을 경험하며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6. Crossover analysis between Age and Social Welfare Safety Questions

Crossover analysis	Knows the safety knowledge necessary for performing work in the social welfare.					Total (N)	
	Very scarce	Scarce	Usualy	Suffice	Very suffice		
Age	~ 20	0	0	1	1	1	3
	20 ~ 25	0	0	13	13	9	35
	26 ~ 30	0	1	2	1	1	5
	31 ~ 40	0	0	2	2	0	4
	41 ~ 50	0	0	3	10	3	16
	51 ~ 60	0	0	12	12	1	25
61 ~	0	2	3	5	3	13	
Total (N)	0	3	36	44	18	101	

Table 7. Crossover analysis between Age and Social Welfare Safety Questions

Crossover analysis	First aid classes are needed for social welfare classes.					Total (N)	
	Very scarce	Scarce	Usualy	Suffice	Very suffice		
Age	~ 20	0	0	1	0	2	3
	20 ~ 25	0	1	2	21	11	35
	26 ~ 30	0	0	0	2	3	5
	31 ~ 40	0	0	0	4	0	4
	41 ~ 50	0	0	1	6	9	16
	51 ~ 60	0	0	0	12	13	25
61 ~	0	0	0	8	5	13	
Total (N)	0	1	4	53	43	101	

Table 6은 연령과 사회복지분야 업무수행 시 안전지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과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20~25세가 50세 이상에 비해 사회복지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학교안전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안전교육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전문가와 학부모가 안전점검에 참여보장[7]된 이후 안전교육이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며, 또 젊은 연령층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세대로써 안전지식습득이 빠른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7은 연령과 전공수업에 응급처치 수업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과의 교차분석 결과로, 50세 이상은 20~25세에 비해 전공수업에 응급처치 수업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Table 6의 결과를 뒷받침함을 알 수 있다.

Table 8. Crossover analysis between Social Welfare Safety Questions

		Gender 1	2	3	4	5	
Gender	1						
1		-.038	1				
2		-.005	.877***	1			
3		-.021	.336***	.318***	1		
4		-.167*	.607***	.541***	.425***	1	
5		-.084	.614**	.554***	.290***	.512***	1

*p<.05, **p<.01, ***p<.001

Table 8은 성별, 사회복지전공자가 안전교육이 필요한지(1번), 업무수행 시 안전지식 필요한지(2번), 업무수행 시 안전지식 알고 있는지(3번), 안전교육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4번), 전공수업에 응급처치 수업이 필요한지(5번),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성별을 제외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사회복지분야 업무수행에 안전지식 필요와 전공자 안전교육 필요는 .877(p<.001), 업무수행에 안전지식 앎과 업무수행 시 안전지식 필요는 .318(p<.001), 안전교육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과 안전지식 앎은 .425(p<.001), 응급처치 수업 필요와 안전교육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은 .512(p<.00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4. 참고문헌

[1] S. H. Kim, C. T. Kim, 'Disaster safety education and safety awareness of high school students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0(2), pp. 51-64, 2016.
DOI: <https://doi.org/10.14408/KJEMS.2016.20.2.051>

[2] S. Y. Kim,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2), pp. 279-289,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2.279>

[3] Y. H. Hong, 'Research of College Students Recognition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Living and Laboratory',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28(4), pp. 89-96, 2014.
DOI: <https://doi.org/10.7731/KIFSE.2014.28.4.089>

[4] K. J. Lee, 'Research on "Social Welfare and Safety" (tentative) Curriculum Develop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2), pp. 646-655,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2.646>

[5] S. J. Hwang, 'Survey on Educational Needs for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0(1), pp. 271-284, 2020.

DOI: <https://doi.org/10.5392/JKCA.2020.20.01.271>

[6] H. J. Shin, H. S. Kong, 'A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al Welfare Facility Type',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28(5), pp. 89-97, 2014.

DOI: <https://doi.org/10.7731/KIFSE.2014.28.5.089>

[7] D. Y. OH., S. H. Shin, Y. J. Park, K. H. Kim, J. K. Han, 'A Study on school safety policies by an needs analysis',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Vol. 18(2), pp. 22-34, 2019.

DOI: <https://doi.org/10.7743/kisee.2019.18.2.025>